

제 1 교시

2022학년도 임권의 하프 모의고사 3회차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햇빛이 나뭇잎을 선명하게 밝고 있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희파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우려고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번거로움을 참고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책을 읽어야 해? 지름길이 따로 있는데.”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도리(道理)를 얻기까지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곧바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고, 또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아가야 한다. 겉을 다 벗겨 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그제야 골수가 보이는 것이다. 거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독서란 비유하자면 집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만약 밖에서 집의 외양을 보고는 문득 ‘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알 연고가 없게 된다. 모름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보고서 이 집은 몇 칸 집이며 몇 개의 창살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

(중략)

사람들은 “독서는 마땅히 조용히 완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다. 만약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놓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만약 하루 종일 배회하면서 ‘조용하다’고 말한다면 공부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 약 달이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모름지기 쉼 볼로 달인 다음에 약한 볼로 달여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모름지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문득 나중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가서 이해하여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내 지극한 곳까지 궁구하는 것이 좋다.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널리 취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만 말뜻이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함양해야 한다. 중년이 지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려 들면 안 된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고 사색해야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 양응수, 「독서법」 -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 ②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③ 글을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한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민수’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주형 : 민수야, 어제 졸업한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민수 :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3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난 1년에 겨우 2권 읽을까 말까 한 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기로 했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 100권을 일 년 동안 다 읽을 거야.

- ①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읽어야 해요.
- ②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점점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정해 읽는 것이 좋아요.
- ③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만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 ④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 ⑤ 읽은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력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그러한 명칭에 어울리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량 살상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로렌츠의 진단과 처방은 주목할 만하다. 조건화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와는 달리, 그는 동물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을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의 하나로 보는 그는, 공격성은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하나이기에, 인간에게도 자신의 종족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생득적인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단합된 형태로 공격성을 띤 종족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이것이 인간이 호전성에 대한 열광을 갖게 된 이유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로렌츠의 관찰에 따르면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 그들의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종에 대한 공격을 제어할 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렌츠는 설명한다. 그에 비해서 인간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종을 죽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억제 메커니즘에 대한 진화론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살상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억제 메커니즘을 지니지 못한 인간에게 내재된 공격성은 자기 종을 살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 내재된 공격성을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로렌츠는 회의적이다. 우선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제거한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으며, 또 공격성을 최대한 억제시킨다고 해도 공격성의 본능은 여전히 배출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츠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그는 이성이 인간의 공격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공격성의 본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 첫째 방안은 자신에 대해 자각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인간의 공격성의 본질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하는 이성적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타고난 공격성의 배출구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요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호전적 열광을 충족시킬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격성의 대상이 될 만한 개인들이나 다른 집단과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이 몸 바쳐 봉사할 가치가 있는 진정

한 대의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처방을 통해 로렌츠는 인간의 공격성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3. 윗글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보았다. 잘못된 것은?

|         |     |     |
|---------|-----|-----|
| 억제 메커니즘 | 없음  | 있음  |
| 살상 능력   |     |     |
| 큼       | [A] | [B] |
| 미약함     | [C] | [D] |

- ① 기술이 발달한 이후의 인간은 [A]에 해당한다.
- ② 치명적인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동물들은 [B]에 해당한다.
- ③ 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인간은 [C]에 해당한다.
- ④ 신체적으로 미약한 힘을 지닌 동물들은 [D]에 해당한다.
- ⑤ 일반적인 진화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B]와 [C]이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능에 대한 상이한 이론을 대비하며 소개한다.
- ② 인간의 이성에 대한 특정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인간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소개한다.
- ④ 인간의 과거 생존 방식과 현재 생존 방식의 차이점을 밝힌다.
- ⑤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동물의 세계를 설명한다.

5. 윗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는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지어 음미해 볼 만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폭력적 성향의 인물로, 길거리의 노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을 일삼는다. 그러다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의 강압적 교정 기술에 의해 ‘착한 인간’이 된다. 그 후 그는 나쁜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하고 심한 고통을 느낀다. 사회로 돌아온 후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그는 절망 끝에 자살을 기도한다.

- ① 인간의 공격성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공격성의 원천인 사회 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인공만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야.

- ③ 주인공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 ④ 주인공이 다른 모험적인 일이나 경쟁적인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공격 충동을 해소했다더라면 좋았을 걸.
- 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더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6. ㉠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늑대는 목덜미를 자신의 이빨에 들이대며 복종의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늑대를 죽을 정도로는 몰지 않는다.
- ② 호랑이는 소변이나 대변을 배설하여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맹수에게 경고를 보낸다.
- ③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사자들의 맹렬한 싸움은 종족 보존에 유리한 2세를 얻는다는 순기능이 있다.
- ④ 비둘기는 새장에 갇혀 도망갈 수 없는 상대 비둘기를 죽도록 쫓아대는 행위를 하곤 한다.
- ⑤ 까마귀는 낮 동안에 고양이에게 눈에 띄기만 하면 떼를 지어 공격해서 멀리 쫓아버린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사의 시재(詩才)를 칭찬하며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이니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구경하고 칭찬을 아니 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 왔다. 당(堂)에 오르는 모양을 본즉, ㉠ 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정이 사라지고 아주 판 사람 같았다.

대군이 “무슨 병이 있는가?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가?”하고 희롱하니 앉아 있는 모두가 웃었다.

“한미한 유생이 외람되이 대군의 농을 받음인지, 복이 지나고 화가 당도하였는지 근일에는 식사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매 왔습시다만…….”

김 진사가 그 중 나이 어리므로 말석에 앉았으며 다만 한 벽이 가리웠더라. 밤이 이미 깊으며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통이를 향하여 앉거늘, 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 이에 답장을 써 부치고자 하나 청조(靑鳥)\*가 없는지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마침 동문 밖에 한 무녀가 있어 영리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궁중에 출입하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여겨 그 집을 찾아가니, 그 무녀가 서른이 채 못 되고 자못 자색이 아름다우나 일찍이 혼자되었더니, 진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거늘 진사가 잔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금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 명일 다시 오마.”하고 가더니, 다음 날 또 간즉 대접이 여일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또 다시 “명일

오마.”하고 돌아가니, 무녀가 그 행색을 괴이히 여겨 ㉢ 의심을 하나 그 용모의 탈속함과 풍채의 준수함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 하더라.

이튿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 방석을 두루 벌여 띄고 계집종에게 “문 밖에 가 기다려라.” 하더니, 이윽고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진사가 눈을 들어 그 단장의 화려함과 늘어놓은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괴이히 여기더니, 무녀 가로되,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전대 이러한 옥인(玉人)을 보는고?” 한대, 진사가 뜻이 다른 데 있는지라, 그 말에 대답지 아니하고 ㉣ 슬픈 표정으로 있거늘, 무녀가 또 돌우어 가로되, “과부의 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진사 가로되, “무녀가 만일 신령한즉 어찌 나의 온 뜻을 알지 못하리오.” 하거늘, 무녀 더욱 괴이히 여겨 즉시 신단에 나아가 점쳐 보고 나서 말하되, “낭군야,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행하지 못할 계획으로써 ㉤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도다. 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삼 년이 미치지 못하여 황천 사람이 되리도다.”

진사가 울며 왈, “그대 비록 이루지 아니하여도 내 또한 아는 일이라.” 하고, 인하여 전말을 자세히 일러 왈, “㉥ 마음속의 원이 맺힌지라. 백약으로 풀지 못하리도다. 다만 바라나니 그대로 인하여 내 편지 한 쪽만 전하여 주면 죽더라도 또한 영광이 되리도다.” 무녀 가로되, “천한 무녀가 비록 신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간혹 출입함이 있으나, 부르는 명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낭군이 저토록 간청하니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리이다.” 진사가 기뻐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어주며 당부하되, “삼가 그릇 전하여 화를 짓게 말라.”

무녀가 응낙하고 받아 가지고 궁에 들어가니, 궁중 사람들이다 그 옴을 괴이히 여기거늘 무녀가 다른 말로써 대답하고, 인하여 틈을 타 눈 주어 첩을 데리고 후정(後庭) 그윽한 곳에 가 편지를 주거늘, 첩이 받아 가지고 방에 돌아와 떼어 보니 하였으되,

‘그대를 한 번 봄으로부터 마음이 날고 혼이 흩어져 능히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매양 서쪽을 향하매 거의 창자가 끊어지기도다. 벽틈으로 주던 글을 공경하여 받아 보기를 다 못하여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글자를 적시는지라 잠을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능히 내리지 못하여 병이 골수에 들매 백약이 무효한지라. 다만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귀신이 도와주시어 생전에 만나 ㉦ 이 한을 씻게 하시면 백골 난망이라.’ 하였더라.

(중략)

첩이 보기를 마치매, 소리 끊이고 기운이 막혀 입으로 능히 말을 못하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하여 눈물이 다하매 피가 나는지라. 사람이 알까 병풍 뒤에 앉아 종일 흐느끼고 그 후로부터 더욱 잇을 길이 없어 미친 듯 취한 듯하여 자연 얼굴과 말에 나타나매 대군이 의심하고 사람의 괴이히 여김을 면치 못하였노라.

- 작자 미상, 「운영전」 -

\* 청조(靑鳥):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7. 윗글을 읽으며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 ②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
- ③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 진사를 기다리는 모습
- ④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 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 진사가 만나는 모습

8. ㉠~㉡중, ㉢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윗글에 나타난 ‘김 진사’의 심정을 (가)~(마)와 같이 표현했다고 할 때, 이를 참조하여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시름이 그득하다 하지겠지만  
내 마음속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땀에 그러느냐 하시리이라

(나)

뜻밖에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 보니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달 밝고 고요한 밤엔 생각 더욱 설위라

(다)

비는 온다마는 임은 어이 못 오르고  
물은 간다마는 나는 어이 못 가르고  
오거나 가거나 하면 이대도록 그리라

(라)

낙엽에 두 자만 적어 서복풍에 높이 띄워  
월명 장안(月明長安)에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께서 보오신 후(後)면 입도 반겨하시리라

(마)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간장(肝腸)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  
일신(一身)이 수화상침(水火相侵)\*하니 살동말동하여라

\* 수화상침(水火相侵): 매우 곤란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 ③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10. (가)~(마)의 시어를 윗글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 ②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배경이다.
- ③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④ (라)의 ‘서복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 ⑤ (마)의 ‘수화상침’은 김 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풋잠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중수: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웃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되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건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뜰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 호호한 흉중: 넓고 넓은 가슴 속.
- \* 요잠반각: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 단단 환선: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 서의한: 맹세한, 약속한.
- \* 영허소장: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퇴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억의 형성을 '장기강화'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의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냅스 연결을 한다. 이 신호가 강력해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냅스 연결은 신경세포에 있는 이온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다.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며 이동하는 성질 등으로 신경세포막의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은 신경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우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주로 세포막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아져 세포막 안팎이 각각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는 분극이 일어난다. 이 과정의 신경세포는 안정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양전하를 띤 Na<sup>+</sup>(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에 양전하가 쌓이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은 신경세포를 흥분상태로 만들면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형성한다. 신경세포가 흥분상태가 되면 세포 밖의 Ca<sup>2+</sup>(칼슘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 Ca<sup>2+</sup>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 즉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시킨다.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 세포를 '시냅스전세포', 화학적 신호를 받는 세포를 '시냅스후세포'라고 한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이 장기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글루탐산과 Ca<sup>2+</sup>의 역할 때문이다. 흥분상태의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은 시냅스후세포의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다. 먼저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이 통로로  $\text{Na}^+$ 이 안으로 확산되면 시냅스후세포도 탈분극되어 흥분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루탐산의 자극을 받고 있는 NMDA 수용체의 통로에서  $\text{Mg}^{2+}$ (마그네슘 이온)이 제거되어 통로가 열린다. 그리고 개방된 NMDA 수용체 통로로  $\text{Na}^+$ 과  $\text{Ca}^{2+}$ 이 확산에 의해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text{Ca}^{2+}$ 은 세포 안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새로운 암파 수용체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시냅스후세포는  $\text{Na}^+$ 을 더 많이 받아들여 탈분극을 강화하고,  $\text{Ca}^{2+}$ 의 유입이 지속되어 흥분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흥분된 시냅스후세포는 역으로 시냅스전세포에 신호를 보내 시냅스전세포의 글루탐산 분비량을 늘려 시냅스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냅스 연결은 3시간까지 유지되는데, 이를 초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이에 비해 시냅스 연결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후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후기 장기강화가 초기 장기강화와 다른 점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암파 수용체는 수명이 짧아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려면 암파 수용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 장기강화 때처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만을 활용하면 이를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단백질을 합성해 암파 수용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초기 장기강화를 통해 단기 기억이, 후기 장기강화를 통해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고 본다.

\* 수용체: 단백질로 된 구조물로 세포 외 물질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관통하는 통로를 갖고 있어 이온을 투과시키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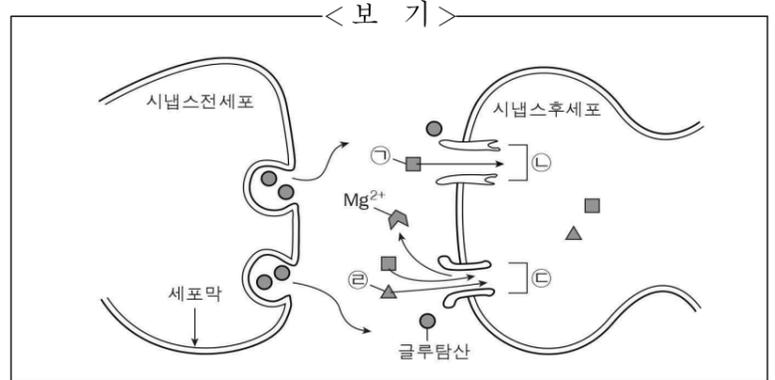
1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틱새가 존재한다.
- ② 시냅스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 ③ 시냅스전세포와 시냅스후세포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 ④ 신경세포가 흥분상태일 때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진다.
- ⑤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양이 줄어든다.

1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text{Na}^+$ 은 신경세포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이 분포하겠군.
- ② 장기강화에서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되겠군.
- ③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열리면 시냅스후세포 안의  $\text{Na}^+$ 의 농도는 떨어지겠군.
- ④ 시냅스전세포 내부의  $\text{Ca}^{2+}$ 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 글루탐산이 분비되겠군.
- ⑤ 글루탐산의 자극과 시냅스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동시에 일어나면 시냅스후세포의 단백질 활성화가 억제되겠군.

16. [A]를 참고하여 <보기>를 44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냅스후세포가 흥분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 ② ㉠이 시냅스후세포로 유입되면 ㉡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 ③ ㉡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의 자극이 필요하다.
- ④ ㉡의 통로로 ㉢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냅스후세포의 탈분극이 필요하다.
- ⑤ ㉢의 유입이 지속되면 시냅스후세포의 흥분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실험 조건]

- 신경세포 A에 강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강한 신호를, 신경세포 B에 약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약한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세포 C와의 시냅스 연결을 시도함.
- A, B, C 이외의 다른 신경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실험에서 가하는 전기적 자극 이외 다른 자극은 없음.

[실험 내용 및 결과]

- ㄱ. A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ㄴ.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ㄷ. A에서 발생시킨 신호와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동시에 C로 전달하였더니 두 경로의 시냅스 연결은 모두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① ㄱ의 A에서는 분극 상태가 지속되어 활동전위가 형성되지 않았겠군.
- ② ㄱ의 C에서는 A의 신호를 받아들여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일으켰겠군.
- ③ ㄴ의 C에서는  $\text{Na}^+$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강한 탈분극이 일어났겠군.
- ④ ㄴ의 B와 달리 ㄷ의 B에서는  $\text{Ca}^{2+}$ 이 유입되지 않아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았겠군.
- ⑤ ㄴ의 C와 달리 ㄷ의 C에서는 세포 안의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암파 수용체가 만들어졌겠군.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